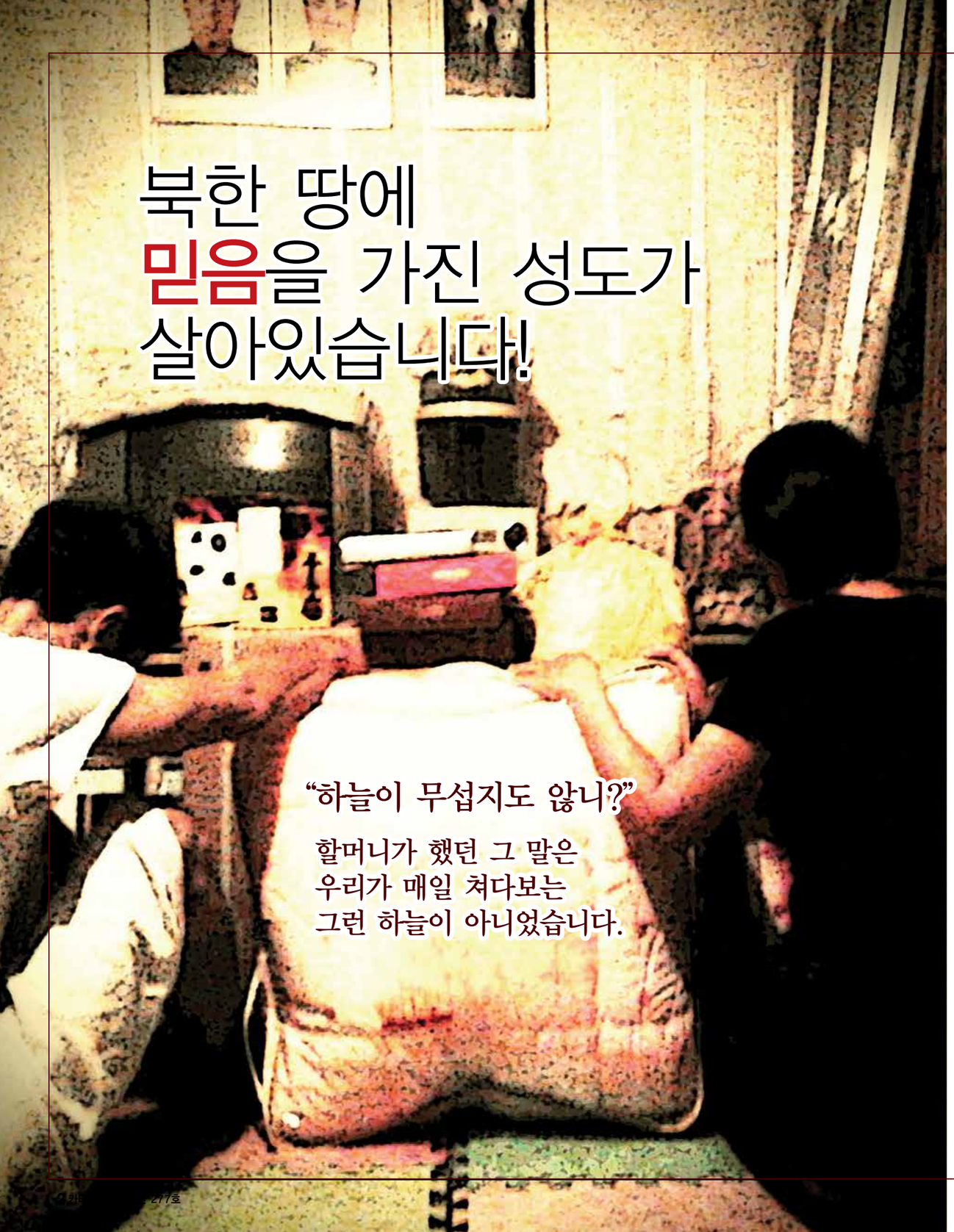
카타콤소식

CATACOMB CONNECTION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통권 제 277호 2013년 9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세워지는 북한지하교회

이 소식지는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복사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위의 분들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모퉁이돌선교회 Printed in Korea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온 소녀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조선족들을 만나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셨던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던 그 말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예수쟁이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십니다.

"나도 가야해! 나도 가야해!"

이 말을 하는 탈북성도의 진심어린 말과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아는 걸까요? 중국에서 만난 한족예수쟁이들의 간절함이나 구소련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탈북성도들의 몸부림치는 기도와 찬송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헌신과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왜 닮지 못하는 걸까요?

"걱정이외다!"

"뭐가요?"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가 정부로부터 허락받는 것은 좋은 일이오만… 돈, 돈, 돈 하는 세상이 되고 배가 불러도 여전히 주님을 찾을런지…"

1983년, 만주로의 첫 여행 그리고 1985년에 모퉁이돌 선교회가 시작되어 성경을 배달하면서 만난 한 조선족 노인의 걱정 어린 한마디입니다.

오랜 세월을 공산치하에서 살아왔던 노인은 앞으로 오는 세대가 염려스러웠습니다. 당시 젊었던 저는 그 노인의 말을 무심히 넘겼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노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경제가 성장하는 중에도 믿음이 여전히 순수할 수 있을까? 하던 염려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성경이 2천 년 이전의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옛날 고서로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일쑤이고,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요술쟁이를 부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물으셨던 할머니는 작은 음성으로 **"심판이 있어~"**라고 말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심판대에 올려 질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할 그 날에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 날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 날 이후로는 어린양 예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북한 땅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무익한 종 이 삭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세워지는 북한지하교회

모퉁이돌선교회의 북한선교는 2004년 이전까지 북한 외부에서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2004년 이후, 북한 내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전면전인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즉,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훈련받은 지도자들을 통해 지하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다.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북한에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지하교회개척의 방법은 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받은 백성들에게 직접 '북한으로 돌아가라' 는 말씀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증표로서 보여주셨던 성도가 있었다.
2005년 9월 중순,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저는 중국 땅에 넘어와 어떤 분이 건네주는 성경 한 권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에게 말씀을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꼼짝 없이 방안에 가두어 놓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날은 기도하는데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북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제가 손을 앞으로 내어 밀고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옥수수가 사람만큼 자랄 때 북한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간 그녀는 2006년 6월 인편을 통해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 길은 처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걸어 다녀서 발톱 10개가 다 빠졌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 민족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사명이 더 굳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 는 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측은히 생각하고, 동정도 하지만 이 에스더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성도들은 굶주림과 매 맞음과 갇힘과 죽음의 위험으로 가득 찬 그 땅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2003년 이전 262개였던 지하교회가 2004년 205개, 2005년 276개의 지하교회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2013년 6월말까지 북한전역에 1,479개의 지하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일이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시 북한지하교회와 관련하여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하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모퉁이돌선교회의 한 일꾼은 북한성도로부터 그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261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척된 교회명단을 북한성도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일꾼은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개척된 261개의 교회명단을 본부가 확인한 결과 97개 교회는 이미 모퉁이돌선교회 일꾼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개척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숫자를 뺀 나머지 164개의 지하교회가 북한 안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개척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전역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의 숫자이다.

지난 2년 동안 중국현장의 상황이 일꾼들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가져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북한교회 개척사역이 주춤하는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그 사이에 북한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회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숫자는 일꾼들의 지원과 훈련으로 개척된 지하교회숫자보다 4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교회가 왕성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통일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시금석이다. 통일은 선교전략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 안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되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내부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의 아픔이 따른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친 한 성도가 쓴 일기를 공개한다.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뜨겁고 깊은 줄 미처 다 몰랐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정말 감사하단다.
압록강의 깊고 물살이센 그 깊은 강물에 빠진 나를 죽음의 나락에서 새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나의 부모나 형제도 자식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마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남한 사람들을 만난 것을 알게 되면 안기부 돈을 받아먹고 간첩임무를 받았다고 역적죄를 들씌우며 정치범 취급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적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마음속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이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복음전도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나는 주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엄마는 매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복음을 전도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디 선택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린단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큰 긍지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직 선과 자비 구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착한 일만 하여야한다.
시련은 믿음과 배신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오직 진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과 시련에 찬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야겠다.
나는 우리 가족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도록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곧 돌아갈테니 기다려라!

이 성도는 2012년 두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중국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잡혔는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의 피가 뿌려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북한지하교회 개척을 통해 이미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에 북한의 성도들을 불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이 일을 힘써 이룰 것을 강권하고 계신다. 그들로 교회를 개척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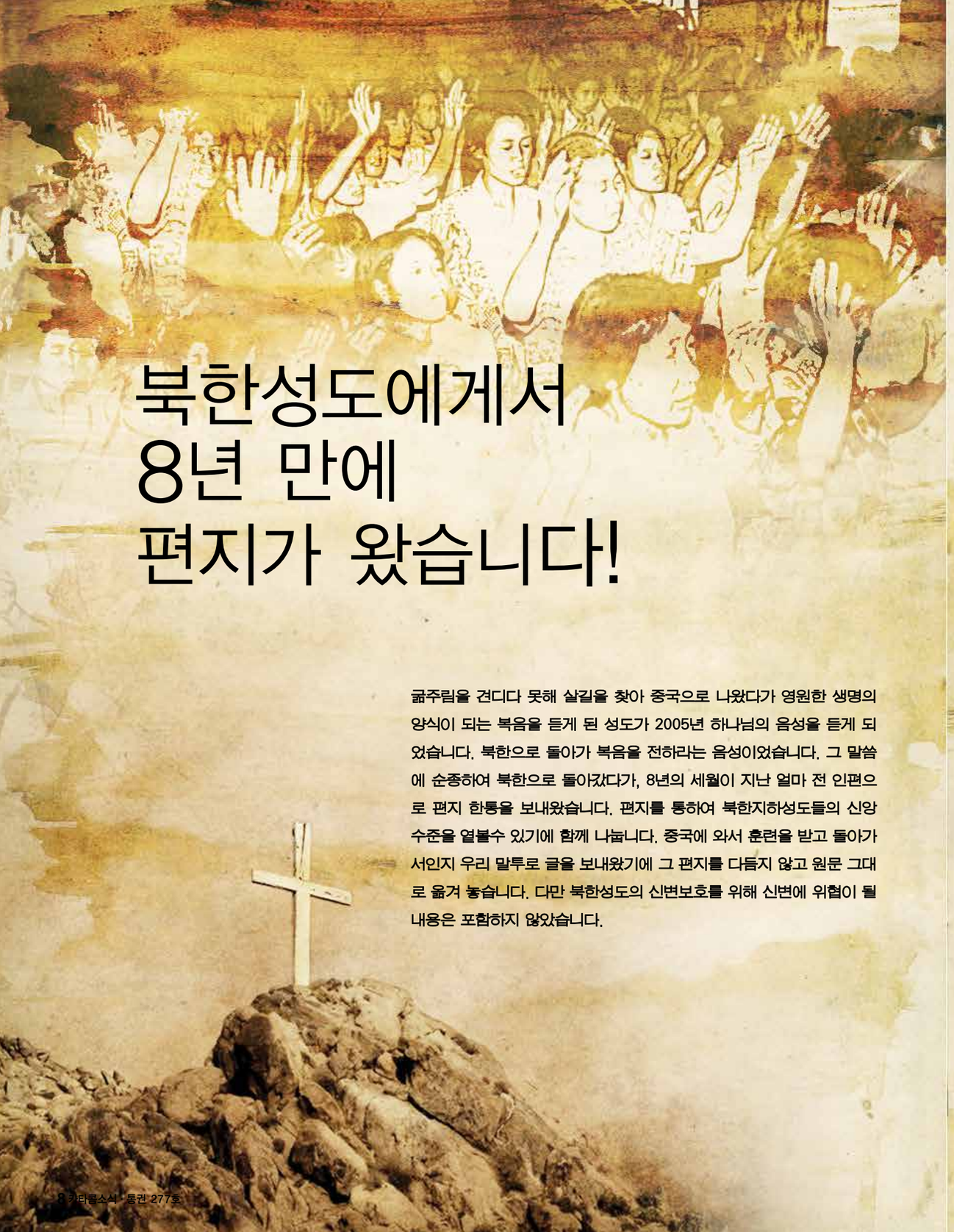
신발 한 켤레로 쑥대밭이 된 지하교회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두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번에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1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전도해 모임을 이끌어온 한나 자매가 가족 단위로 모여 예배를 드려왔을 뿐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념으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일꾼은 북한성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이 자매가 한나입니다. 저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북한에 들어가 전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나 자매가 여기 왔다가 며칠 전 성경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소식이 올 때가 지났는데 걱정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꾼은 한나 자매가 보위부에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에 나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준비해 가면서 한 성도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것을 본 다른 성도가 자기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은 것을 고깝게 여겨 한나를 고발한 것이다. 결국 연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동자로 몰린 한나 자매는 그 후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고, 다른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다.

한나를 지켜주실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성도에게서 8년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나왔다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음을 듣게 된 성도가 2005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8년의 세월이 지난 얼마 전 인편으로 편지 한통을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북한지하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엿볼수 있기에 함께 나눕니다. 중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인지 우리 말투로 글을 보내왔기에 그 편지를 다듬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다만 북한성도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변에 위협이 될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남모르게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시각도 이름도 없이 남모르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열매가 밑거름이 되어 여기서 씨앗들이 움터나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선에 와서 말하기도 겁이 났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심과 변덕스러운 질문들이 들어오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겁을 내는 과정에서 위험이 닥치고 사형선고와도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아무리 힘쓰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과연 저럴 수가 있을까 용서가 안 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상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 보이고 들리는 그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특히 북조선에 와서 전도로 얻게 된 동역자 형제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제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온다." 고 하며 위로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성경책을 다시는 더 두고 다니지 않으렵니다. 생명의 말씀 책은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합니다. 지금도 환경이 좋은 중국을 다녀온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남겨두고 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려와 눈물만 방울방울 흘러내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저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외쳐 주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기라고… 환경이 좋고, 성경책이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인들과 함께 지낼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미처 몰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늘상 내 마음 속에 불러보는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바쁘고(어렵고), 누가 들을세라 볼세라 주의를 하다보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날개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러 날아가고 싶습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살지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변하여도 헤매이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때마다 안타까워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마다 성경구절이 떠오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의지가 되어 내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어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과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남편입니다. 내 운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모욕할 때도 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서 울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 분하여 울고, 육신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순간이나마 은혜를 잊고 산 것이 부끄러워 내 마음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을 밝혀 나를 살피고 감시하여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소리 높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복음은 내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당에 안치되었을 때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팔이 부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진 우상과 마음속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운 분들과의 만남의 상봉을 그려볼 때마다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만 합니다.

에스더 올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한 북한 영혼들의 아픔과 호소입니다. 마음 판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전부인 이들에게 성경은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북한성도들, 중국에 있는 동안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날개가 있어 날아가고 싶다고 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중에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북한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황폐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선 동역자들이 세워져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이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성도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악이 만연한 조국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북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도 보내지고 교회개척을 위한 지원도 계속되어 마음 놓고 예배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통일선물을 준비합시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통일이 될 때 북한주민들은 피난민이 되어 몰려 올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나그네가 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물을 넣을 '통일선물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차원에서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물품은 가정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의류나 물품들은 반드시 새 것이거나 좋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항목들을 백에 채울 수 있는 만큼 많이 채우십시오. 의류는 반드시 그림이나 글씨가 없고 특히 북한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 또는 용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문구 등을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 담요, 얇은 이불
- 겨울잠바 : 어른 · 아이
- 내복: 봄 · 여름
- 바지: 겨울 · 여름
- 츄리닝
- 티셔츠
- 스웨터
- 성경과 찬송가
- 수 건
- 양 말
- 장 갑
- 칫 솔
- 치 약
- 비 누
- 화장지
- 학용품

주일

북한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1945년 해방과 함께 공산화되어 오늘에 이르는 북한은 매년 가장 극심한 종교탄압국가로 발표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와 기업, 가정 단위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서로를 감시하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 발각되면 3대가 멸족을 당하고, 총살은 물론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임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시편 102편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지키다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히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고 듣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북한성도들의 고통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통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가정마다 성경이 보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으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북한으로의 성경배달에 어려움이 많기에, 북한성도들에게 성경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또한 이미 68년 동안의 분리로 인한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모퉁이돌선교회는 북한어신약성경을 번역하여 2006년부터 인쇄해 보내고 있으며, 구약 번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올 해 8월 15일, 구약도 초본이 번역되었다. 하루 속히 신구약합본 북한어성경이 준비되어 480만 북한의 모든 가정마다 성경이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경 한 권조차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는 북한에 더 많은 성경이 보내질 수 있도록 친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배달에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북한어구약번역이 속히 마무리되어 북한성도들에게 보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480만 가정마다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과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수요일

자생적으로 세워지는 북한지하교회가 흥왕케 하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하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북한지하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교회야말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파를 통한 말씀배달이 필요하다. 북한성도들에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북한 안에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에 자체적으로 세워진 지하교회가 더욱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로 보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모진 고난과 고통 중에도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북한성도들이 있다.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간구했던 말씀과 같이 북한에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 그 고난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북한지하교회가 네트워크로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북한지하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하교회가 부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북한지하교회가 네트워크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욱 힘을 얻어 서로가 연합하여 성장하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북한지하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교회들로 통일의 때에 연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토요일

북한의 4,781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퉁이돌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을 행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그날에 흩어져 있는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14개 중요도시에 500명 이상 예배할 교회가 세워지고, 통일 후 북한의 행정구역상 구분된 4,781개의 고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야만 남한교회 중심이 아닌 고난을 견뎌온 북한지하교회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찌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통일의 때에 북한지하교회가 든든히 세워 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북한의 고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적을 기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기증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서들을 기증하시면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신학, 신앙서적을 본 선교회로 기증해 주시면 선교회 도서실 혹은 선교지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책이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단적인 내용의 서적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주신 책 중에 훼손된 책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책들은 선별해서 폐지로 처리하면서 얻은 수입은 선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선교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집회를 원하십니까?
선교보고를 듣기 원하십니까?
어느 곳이든 모인 숫자와 관계없이 요청하는 곳에 찾아가 말씀과 선교보고를 전합니다.
본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 02-796-8846

정세와 선교
2013년 9월 107호

북한 지하교회 실상과 지원방안

1. 김일성 일가의 기독교 신앙과 배경
2. 그루터기 신앙과 지하교회인
3. 탈북성도, 중국 및 변경지원
4. 북한 지하교회 실상
5. 북한 지하교인 지원 및 선교
6. 북한지하교인 지원, 역할 분담해야
7. 우리의 기도
8. 주간분석
9. 월간 뉴스 초점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의무화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해 우편물을 받는 분들은 도로명 주소로 수정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본회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모퉁이돌선교회 02-796-8846

북한에서 복음풍선을 주워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며칠 전 복음풍선 날리는 사역에 참여했던 가족입니다.
복음풍선 날리는 사역은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풍선 날리는 일에 참여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터민 한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북한에서 복음풍선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복음 풍선을 줍게 되었고, 북한에서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복음풍선의 내용(성경말씀)을 자세히 읽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학기간에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와 4남매가 모두 복음풍선 날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평양에서 7살에 피난을 내려오셨고, 시아버지도 함경도에서 16살에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음풍선을 보낼 때 장엄하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북한을 향해 풍선을 날리시면서, '남몰래 풍선을 날리는 일도 이리 맘이 두근거리고 떨리는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실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랬겠지…'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고, 풍선으로라도 고향에 복음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복음풍선을 날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토록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고, 북한 땅에서 성경도 없이 기억나는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있을 주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복음풍선을 보내는 사역에 참여한 후, 복음풍선이 북한 땅에 떨어질 때 필요한 자에게 전해지기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복음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복음의 소중함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되길 기도합니다. 모퉁이돌선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부천의 한 가정 드림

복된 추석

추석 선물로 만화성경 어떠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명절,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가족과 친척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만화성경 메시야시리즈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성경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하던 분들에게도 말씀을 부담없이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리즈소개 / 1권 제네시스(창세기,출애굽기) 2권 킹스(사사기,사무엘 상.하)
3권 메신저(선지서) 4권 메시야(사복음서)
5권 액츠(사도행전)

◤ 교회나 단체에서 다량으로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모퉁이돌선교회로 연락주세요.
◤ 만화 성경 메시야시리즈 수익금은 북한에 만화성경을 배달하는데 사용됩니다.

낱권: 9,500원
5권 Set: 35,000원

모퉁이돌선교회 02)796-8846
도서담당 02)797-8846

문광서원

문광서원 홈페이지 오픈!
모퉁이돌선교회에서 출간한 북한어성경, 만화성경, 신앙서적, 북한관련자료 등을 이제 웹에서 만나 보세요! 홈페이지 주소 : www.munkwang.com
NAVER 문광서원 검색

정정합니다.

카타콤소식 2013년 8월호 잘못된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5페이지 특집1 '나시족은 2백 7십만이나 되는 아주 큰 민족입니다'에서 2백 7십만을 30만(308,839/위키백과)명으로, 같은 페이지 동족(東族)을 동족(同族)으로 정정합니다.

국내 동참 안내

지로번호 7523399 예금주 모퉁이돌

국민은행	809-01-0047-431
"	079-25-0003-897
농 협	011-01-423842
외환은행	154-13-00604-7
제일은행	206-10-025184
우리은행	140-05-032281
하나은행	374-810090-90805
우 체 국	013086-01-000102
신한은행	310-05-003700

은행자동이체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홈페이지나 본 선교회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해외 동참 안내

미국 Cornerstone Ministries Int'l
P.O.BOX 4002 Tustin, CA92781
Phone 714-484-0042 Fax 714-484-0046
E-mail info@cornerstoneusa.org

캐나다 Cornerstone Ministry of Canada
10-8707 Dufferin Street Suite #119
Vaughan, ON L4J 0A6
Phone 416-206-9191
E-mail info@cornerstonecanada.org

보내주시는 헌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기도 모임안내

한 국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2013년 9월 30일 (월) 오후 7시**
- **장소: 정동제일교회**
(1호선 시청역 1번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미 국 (매주 월요일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2013년 8월 9, 16, 23일** (월) 오전 10시
9월 30일 (월) 오후 7시
- **장소: 에반젤리아(복음) 대학교 강당 (2층)**
(2660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광야의 소리' 방송 안내

단파	11860 khz	월~토 밤 10:00~11:00
		주일 밤 10:00~11:30
	7375 khz	월~토 새벽 4:00~5:00
		주일 새벽 4:00~5:30
중파	1566 khz	주일 새벽 4:00~5:00
		화,목 새벽 4:00~4:30
	1188 khz	금, 토 새벽 1:20~1:35

http://www.cornerstone.or.kr 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드리는 공개방송 예배 '광야의 소리'가 모퉁이돌선교회 지하 1층 예배실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SMS 문자 안내

02-**796-8273**으로 문자를 보내 주세요.
회원님의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사항이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선교지의 기도제목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수첩

북한을 위한 기도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다량으로 기도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PDF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필요하신 대로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어 성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성경이 준비되어 성경을 요청하는 중국의 성도들에게 보내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CORNERSTONE

한국 모퉁이돌선교회
(135-660) 서울 영동우체국 사서함 8호
Phone 02) 796-8846 **Fax** 02) 792-7567
E-mail main@cornerstone.or.kr
website www.cornerstone.or.kr

미국 Cornerstone Ministries Int'l
P.O.Box 4002 Tustin, CA 92781
Phone 714) 484-0042 **Fax** 714) 484-0046
E-mail info@cornerstoneusa.org

캐나다 Cornerstone Ministry of Canada
10-8707 Dufferin Street Suite #119
Vaughan, ON L4J 0A6
Phone 416) 206-9191
E-mail info@cornerstonecanada.org

성경말씀이 그리워 산을 넘습니다!

영하 20도를 한참 밑도는 추위에 한 여인이 눈이 쌓여 푹푹 빠지는 산길을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내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눈만 겨우 보이는 모자를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완전히 쓴 모자는 고드름같이 하얀 얼음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흡사했다. 체구가 자그마하고 키는 150cm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다.

현지일꾼은 준비해 간 따뜻한 옷을 여인에게 덮어주고 쉘터로 향하였다.

"집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제 밤 9시에 출발해 밤새 산을 4개 넘어서 왔습다. 길이 없는 험한 산을 넘어와야 하니 지치고 많이 힘들었습다. 거기다 눈까지 많이 오니 힘들었습다."

15시간을 걸어온 것이다.

"걷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어서 왔습다. 여기 와서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돌아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집니다. 그렇게 성경말씀이 그리워 가슴이 뛰고 설레면 나도 모르게 날을 정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로 옵니다."

"험한 산을 몇 개씩 넘어야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원래는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타오르면, 무언가에 이끌려 길을 나서게 되는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인은 쉘터에 2~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집중하였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밤을 지새우면서 허기진 사람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또 채웠다. 그러나 2~3일 동안 성경말씀을 보는 것으로는 그 갈한 심령을 채우기에는 한 모금의 양도 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3일째 되는 밤 10시 다시 북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성경을 보내기 원합니다

☐ 한글주석성경 (구좌) 1구좌/3만원 ☐ 한글일반성경 (구좌) 1구좌/7천원

☐ 북한어성경 (구좌) 1구좌/4천원 ☐ 중국어주석성경 (구좌) 1구좌/3만원

※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지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7523399, 예금주/ 모퉁이돌)

- 이 름 : .....
- 전 화 : .....
- 주 소 : .....
  .....

Yes

발행 2013. 8. 31 / 통권 277호 / 최초발행일 1990. 4. 20 / 월간지 / 발행인 유석렬 / 발행처 모퉁이돌선교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208번지